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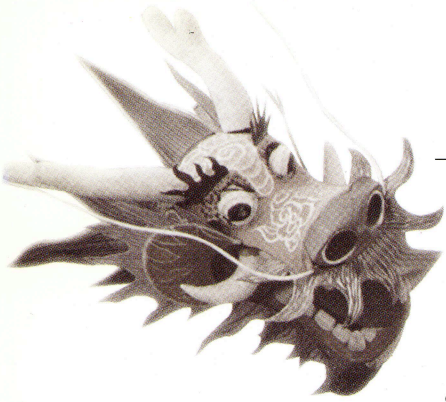
# 강릉 용물달기



때 : 1997. 10. 15~10. 17

곳 : 전라북도 익산시

강원도



용물달기는 '용이 물을 달고 온다'는 뜻으로 정월 대보름날 새벽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임경당에서 이웃에 있는 샘물을 떠온다. 이날 마을 사람들은 임경당에 모여 용을 끌고 이웃에 있는 샘터 3군데 가서 샘물을 떠와 임경당 뒤편에 있는 용천수에 붓는다.

또, 정월 대보름날 민가에서는 자기 집에 있는 우물의 물줄기가 부족하면 물줄기가 풍부한 샘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우물에 갖다 붓는 습속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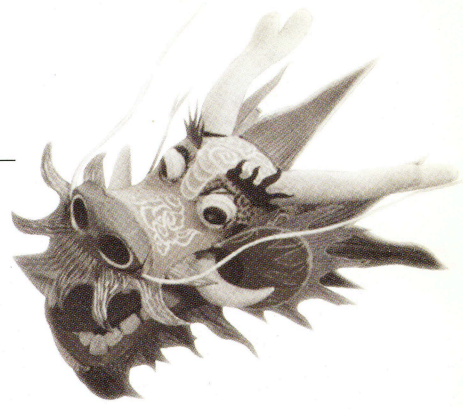
물줄기가 풍부해진다고 믿는다.

정월 대보름은 설, 단오, 한가위와 더불어 우리나라 4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써 농경사회에서 봄맞이 잔치다. 정월대보름은 세시습속이 특히 많이 있는데 '한해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들이다.

용물달기도 그중의 하나로서 용을 통해 집안의 행운과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다. 또 보름날 일꾼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줌으로써 한해 농사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돌아 주는 위로행사이기도 하다.



1940년 강릉의 龍祭



금산은 강릉 김씨들이 집단으로 사는 마을이어서 '김씨들이 세운 마을'이란 뜻인 건금이라 했는데 나중에 '건금'이 변해 갱금, 갱금이라 했다.

그후 마을 뒤로 늘어진 산줄기가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으로 생겨 琴山이라 하다가 강릉 김씨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라 金山이라 했다.

마을뒤엔 명주성(장안성)이 있는데, 명주성은 신라 38대 원성왕 2년(786)에 명주군왕 김주원이 식읍으로 삼은 명주의 도읍지이며 김주원의 외향이기도 하다.

금산은 우리나라의 전형적 취락 구조인 배산임류형의 마을이다.

마을 뒤로 성산주령이 늘어져 있는데, 성산주령은 마을 서쪽에 있는 곤산봉과 매봉에서 동쪽으로 내려온 이 줄기는 정봉산, 명주성을 이루면서 시내쪽으로 내려갔고, 마을 앞으로는 강릉의 3대 버당의 하나인 금산버

당이 펼쳐졌고 옆으로 남대천이 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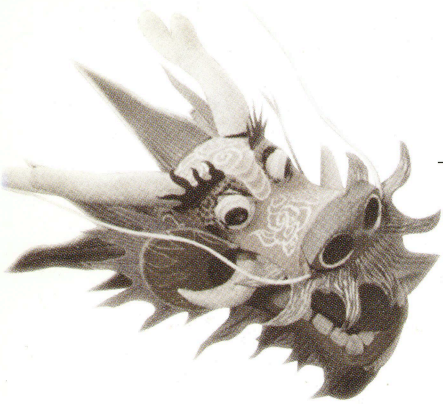
남대천은 삼당령 계곡과 맹떼기 계곡에서 흘러온 물, 제왕산 계곡과 초막골 계곡에서 흘러온 물, 선자령 계곡과 곤산봉 계곡 등 여러 계곡에서 흘러온 물이 구산리에 있는 도리깨소에서 만나 이구산을 지나고, 마을과 회산 사이에 있는 장림을 지나 흙베리, 양장소, 소학소, 광제연 등을 지나 져주에서 섬석천과 만나 바다로 흐른다.

마을은 뒤로 성산주령을 병풍으로 삼고 앞으로는 넓은 들을 끼고 있는데 남대천가에 있어 물이 풍부하여 땅을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고 넓은 들엔 물이 마르지 않는다.



임 경 당

## 임경당의 유래



임경당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6호로 명주성(장안성)

남쪽 낙맥 양지 바른곳에 위치한 목조건물이다.

이 건물은 현 건물주인 김동석씨의 17대조인 임경당 김열이 지은 별당으로 김열은 자기의 호를 당호(堂號)로 삼았다.

임경당 김열은 조선조 선조 때 사람으로 정봉 김광현의 아들이다. 김광현은 중종 14년에 진사가 되었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대과의 꿈을 버리고 낙향한 사람으로 오봉서원을 세운 칠봉 함현의 친우

다. 함현은 김광현에게 정봉이란 호를 지어주고, 김광현은 함현에게 칠봉이란 호를 지어주었다.

김열은 명주군왕 김주원의 24세손으로 강릉 김씨 부정공파이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임영쳐사라 일컬었고 그의 집주위에는 선대가 심은 수백그루의 소나무가 있어 친우인 울곡 이이가 이 소나무를 보고 부자가 소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성을 칭찬하며 「호송설」이란 글을 지어 주었다. 그후 그는 순조 때(1808년) 강릉 출신 가운데 성리학의 가치규범에 충실했던 12분을 모신 향현사에 추배되었다.

## 임경당의 '용물달기' 제력

임경당의 용물달기는 정월 대보름 새벽에 한다. 14일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용을 만들기 위해 명주성 남쪽 자락에 있는 임경당에 모여 새끼를 꼬다 자정이 되면 짚을 잘 추스려 용을 만들기 시작한다.

새벽이 되면 용을 끌고 항상골 샘터에 가 용을 담구었다가 꺼내고 샘물을 길러 임경당에 있는 용천수에 붓고, 다시 솔목골에 있는 샘과 둔봉에 있는 물을 길러와 붓는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용천수에 물줄기는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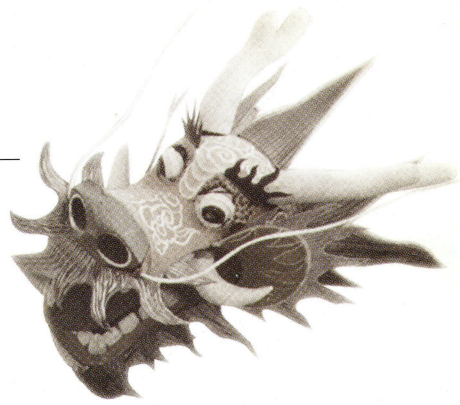
용천수는 임경당의 샘물인데 명주산성에 있는 산

줄기 밑에 있는 우물로 아무리 가뭄어도 줄지 않고 늘 풍부하다.

임경당에서 용물달기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다. 현 집주인인 김동석씨의 17대조인 정봉 김광현이 현재 터에 와 살기 시작하면서 부터가 아닌가 한다.

「강원도 민속지」에 의하면 조선시대 이후 한번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용물달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0여년전 상수도가 들어 오면서 지금은 용물달기를 하지 않고 있다.

# 용의 의미



용은 12지의 하나이며 용을 상서롭고, 신령스럽고, 영험스럽고 또 '구원의 신'으로 여긴다. 12지에서 辰日

'용알뜨기'라는 습속이 있다. 정월 첫 진일(上辰日) 새벽 용이 지상에 내려와 우물에 알을 낳고 가는데 이 용알이 담긴 물을 먼저 길러가면 그해 운이 좋고 풍년이 든다고 한다. 물을 떠가며 그 표시로 지푸라기를 물위에 띄워놓으면 다른 사람이 물을 떠가지 않고 다른 우물로 간다.

또, 진일에 여자들은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용처럼 길어지고 아름다워 진다고 한다.

용은 물을 다스리는 수신 또는 우신으로 여긴다.

물은 생명의 젖줄인 동시에 생명수이며 정화하는데 필요한 정화수다. 물은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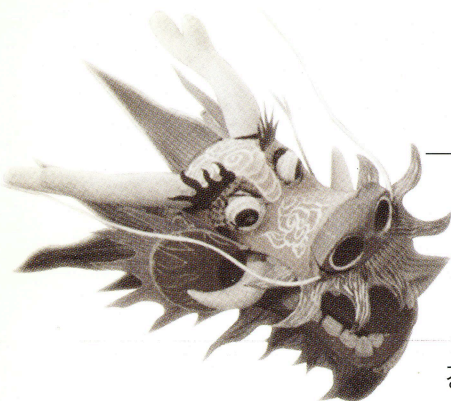
되며 농사를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기우제를 지낸다. 강릉지역민은 기우제를 지낼 때 용의 형체를 만들어 제단에 올린다. 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해난사고가 잦고 고기가 잘 잡히지 않을 때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龍王)에게 제를 지낸다.

이때 용의 형체를 만들어 놓고 용왕굿을 한다.

용은 사람과 친숙한 사이여서 전설이나 지명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강릉지역의 지명에는 용소, 용지, 기용암, 용인동, 용연동, 용강동, 구룡소, 용수골, 청룡뿔, 금룡골 등이 있고 또 승천해 하늘로 올라간 용도 있고, 승천하지 못하고 이무기가 된 예도 있다.





정월 14일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임경당 행랑에 모여 용을 만든다.

용은 짚으로 만드는데 먼저 짚을 가는 새끼로 꼬아 용의 몸체를 양손아귀 굵기만큼 둥글게 만든다. 몸체는 새끼를 감으면서 먼저 용의 머리를 만들고, 양귀를 세우고, 몸통의 양옆과 등쪽으로 새끼를 감으면서 다리와 비늘을 만든다.

용의 길이는 약 7척 정도가 되고 끈을 두발정도 길이로 용의 머리에 맨다.

자정이 되면 임경당 주인은 용출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

〈龍泉祭 祝文〉  
 維歲次 干支正月 支朔 十五干支  
 家主金東錫 敢昭告于 靈井龍王之神  
 伏以水 自天一實 賴龍王  
 莫非神禮 源泉湧出  
 謹以酒果 脯靈式陳明薦

제사를 지낸 후 농악대는 우물굿을 친다. 그 사설은 이러하다.

“용왕님 용왕님 참샘줄은 뚫어주소”  
 “용왕님 용왕님 참샘줄을 뚫어주소”

그리고 연장자는 용을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간다.

처음 물을 뜨러 가는 샘물은 임경당에서 약 200m 떨어진 명주산성 밑에 있는 항상골 샘물이다. 샘에 도착하면 용을 샘물에 담그는데, 용이 완전히 젖을 때까지 담겼다가 꺼내면 사람들은 그릇에 물을 담는다. 용을 앞에서 끌고 가면 뒤따라 오면서 물을 용에게 뿌리며

“용아, 용아, 물 달아라”  
 “용아, 용아, 물 달아라”

하며 주술을 친다.



용을 끌고 임경당 대문으로 들어가 부역을 통해 뒤 안에 있는 용천수에 담근다. 그다음에는 서쪽으로 약 300여m 떨어진 솔봉(정봉산)밑에 있는 샘물로 가서 전과 같이 한다.

세번째로는 임경당에서 약 200여m 떨어진 둔봉에 있는 둔지샘으로 간다. 지금은 메워져 논으로 되었는데 이곳은 괴일에서 흘러오는 내 옆이 된다. 둔지샘에서도 항상골 샘, 솔목골 샘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하고, 용천수에 용을 담그며 꺼내지 않고 물 속에 그냥 놔둔다.

이렇게 용물달기를 하면 용천수 샘은 일년내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용물달기가 끝나면 임경당 주인은 사람들에게 술, 약밥과 안주를 푸짐하게 대접한다. 이날 각자 집에서 수수강으로 오곡형상을 만들어 거름더미에 꼬아 놓고 새벽 일찍 밭에다 거름 한짐 뿌려 놓으면 한해 농사에 풍년이 든다.

아낙네들은 자기 집의 부지깥이나 막대기를 들고 임경당에 몰려와 임경당 대문을 두드리면서 새쫓기를 한다.

아랫녘새야  
안반밑에  
안반 위에  
천지 고를

윗녘새야  
기는새야  
나는 새야  
녹두새야

우리 눈에            않지말고  
저 건너 장재집에 가거라

위이 위이 위이

아랫녘 새야            윗녘 새야  
안반 밑에            기는 새야  
우리집                들지말고  
배다리 이통천 집으로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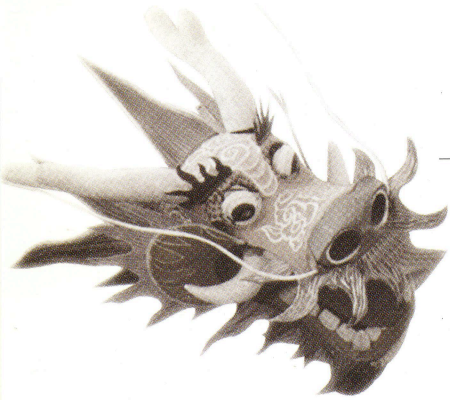
위이 위이 위이

이렇게 새쫓기를 하면 새들이 곡식을 파먹지 않기 때문에 곡식을 잘 거둬들일 수 있다고 믿는다.

낮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동네에 모여 농악을 치며 거리굿을 하고 집집이 다니면서 지신을 밝아주고 걸립을 한다.

저녁이면 마을 뒤에 있는 솔봉(정봉산)에 올라가 달맞이를 한다. 각자 달맞이를 하며 자기의 한해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고 마을로 내려와 햇불을 들고 마을 앞 남대천에 있는 나무다리로 간다. 다리를 먼저 밟기위해 회산마을과 햇불 싸움을 한다. 햇불싸움을 끝내고 밤새 도록 즐겁게 논다.





강릉지역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주민들이 마을 앞 다리에 모여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비는 다리밟기 농악이 전해오고 있다.

강릉농악은 마을 오락의 주축을 이루었고 연례적인 행사를 이루어 왔으며 계절에 따라 정월에는 세시초의 농한기이므로 잡귀를 쫓고 복을 빌며 풍년을 기원하는 「걸립굿」, 「마당밟기」, 「망월굿」, 「좁상날 답교다리굿」, 「기맛이굿」등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부락의 전체 민안태평을 기원하는 농악을 놀았다.

다리굿은 농악을 치면서 상쇠가  
“술렁수 ……”

정축년 정월대보름 이 다리 밟고 금년농사 대풍으로 이루어 주시요”라고 외치면서 다리밟기를 하게 된다. 먼저 서낭모시는 성황굿과 황덕굿, 마당밟기,

굿거리 등의 놀이가 펼쳐진다. 강릉농악은 가식없이 소박한 원형대로 농민들 속에서 호호를 같이 하며 진면목을 지켜오고 있다. 한편 단조롭고 정적인 가락에 변화가 적은듯 하나 이것이 오히려 강릉지역의 전승되고 있는 농악의 특징인 것이다.

다리굿이 끝나면 답교를 한다.

다리밟기는 ‘구리다리’ 혹은 ‘기와밟기’라 하여 강릉에서는 정월대보름날과 좁상날에 다리밟기를 하였다. 다리를 밟을 때 앞에서 먼저 「앗따! 이 다리 잘 놓았다. 술렁술렁 건너가자」하면 모두 합창으로 함께 따라 부른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다리를 밟으면 다리의 질병이 없어지고 열두 다리를 밟으면 열두달의 액을 면한다 하여 다리를 밟을 때 자기 나이대로 다리를 밟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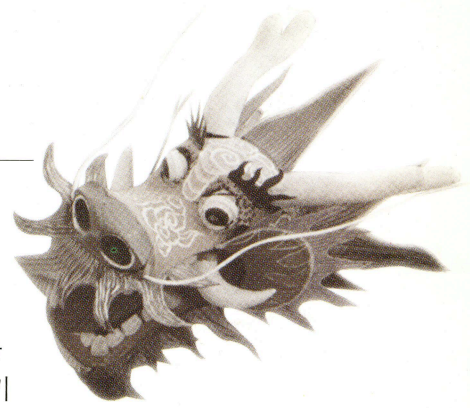


## 쇠절금(쇠싸움)

쇠절금은 '쇠겨름'을 말한다. 두 마을의 농악의 으뜸인 상쇠들이 쇠를 치면서 하는 대결이다.

쇠절금은 강릉지역 농악에서 사용되는 12가락을 모두 사용한다. 이때에 상쇠들은 자신의 기량을 한껏 과시하는데 이러한 놀이는 농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강릉농악

의 다양한 특징이 이속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리밟기 싸움등 모든 놀이의 시작이기도 하다.



## 햇불싸움

햇불싸움은 승부에 의한 간접적 공감주술이 내포된 집단놀이이다. 햇불준비는 대보름날에 대비하여 두 마을에서 가가호호 몇개씩 준비하여 청, 홍색을 물들인 형 겹이나 실을 매달아 준비한다. 초저녁 어스름프레한 시간에 석전을 하고 완전히 어두어졌을때 계속하여 햇불을 들고서 싸움을 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풍물을 치고, 여러 사람의 함성으로 가진 욕설과 악담으로 싸움을 걸면 이편에서도 지지않고 욕설을 한다.

용감한 사람이 선두가 되어 상대편을 향하여 뛰어든다.

이 싸움은 불이 꺼질때까지 계속된다. 햇불에 머리 카락이 그슬린 사람, 머리를 덴 사람, 최후의 한사람까지 햇불이 없어질때까지 싸운다. 이 싸움에 지면 그해 흉년이 든다고 하여 더욱 치열할 수 밖에 없었다.

이 햇불싸움은 금산마을과 회산마을, 그리고 초당과 송정마을, 시동의 마을이 유명했다. 특히 금산, 회산마을간의 햇불싸움은 석전과 함께 사상자가 발생하여 관청에서 금지령을 내리고 서로 혼사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유명했다.

## 제 1 과장 : 새쫓기와 용만들기

농기를 앞세운 농악대, 용잡이, 물바가지  
를 든 마을 사람들이 입장을 하며 대보름  
날 풍년을 기원하며 새쫓기 노래를 한다.  
그리고 용잡이들은 풍부한 물을 기원하며  
용을 만든다. 줄꼬기, 줄여기, 줄말리기  
그리고 용의 머리 등의 순으로 만든다. 만  
든 용은 용천수에 넣어 둔다.

## 제 2 과장 : 용천제

정월대보름날 새벽 용천수에 있던 용을 꺼  
내 맑고 풍부한 물이 용출하길 기원하는  
용천제를 올린다.

## 제 3과장 : 용물달기

제사를 지낸 마을 사람들은 용을 앞세우고  
두 패로 가른다. 그리고 술목골과 항상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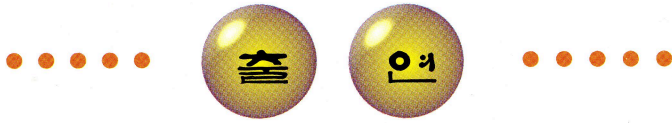
에 있는 샘물을 떠다 집안의 용천수에 붓  
고, 다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제일  
큰 둔지샘터에 가서 물을 담아 나른다. 이  
때에 “용아, 용아, 물달아라”라고 선후소  
리를 하며 농악 장단을 친다. 이는 벽사의  
의미와 물을 안고 오는 용의 출현을 알리  
는 것이다.

영물달기가 끝나면 농악대는 우물굿을 친  
다.

## 제 4 과장 : 답교싸움

용물달기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한해의  
액운을 쫓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다리밟  
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술령수”와 다리굿  
을 하며 이어 양마을 농악대의 상쇠의 쇠  
절금(쇠) 싸움은 시작된다. 먼저 다리를 밟  
기위해 용을 중심으로 햇불싸움으로 절정  
을 이룬다.





- 고 증: 김동석(73), 김용현(70)
- 지 도: 김종달, 김용배, 이경화
- 소 품: 박종임외 8名
- 기 수: 심동진외 2名
- 농악대: 정희철, 최동규외 13名
- 용잡이: 김남수외 68名
- 해잡이: 강순화외 70名

# 강릉 용물탈기



제 38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강원도